

■ 나해·제2275호
연중 제11주일
2024년 6월 16일

안 루이켄 <겨자씨의 비유>

춘천교초천교구



목 차

02 말씀의 향기
들꽃의 미학

03 평신도 단상
우리 주변의 마귀들

04 특집
가톨릭 교회 교리서와 함께
“교리 문해력” 높이기 ¹¹

05 교구 소식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안내



QR코드로 교구소식을!
미사 중에는 자제해 주세요.



천주교춘천교구
www.cccatholic.or.kr

입당송

주님, 부르짖는 제 소리 들어 주소서. 저를 도와주소서. 제 구원의
하느님, 저를 내쫓지 마소서, 버리지 마소서.

제1독서

예제 17,22-24

화답송

- ◎ 주님, 당신을 찬미하오니 종기도 하옵니다.
- 주님을 찬미하오니 종기도 하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여,
당신 이름 찬송하나이다. 아침에는 당신 자애를,
밤에는 당신 진실을 알리나이다. ◎
 - 의인은 야자나무처럼 우거지고, 레바논의 향백나무처럼
자라나리라. 주님의 집에 심겨, 우리 하느님의 앞뜰에서
우거지리라. ◎
 - 의인은 늙어서도 열매 맺고, 물이 올라 싱싱하리라.
불의가 없는 나의 반석, 주님이 올곧으심을 널리 알리리라. ◎

제2독서

2코린 5,6-10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씨앗은 하느님의 말씀, 씨 뿌리는 이는 그리스도이시니, 그분을
찾는 사람은 모두 영원히 살리라. ◎

복음

마르 4,26-34

영성체송

주님께 청하는 오직 한 가지, 나 그것을 얻고자 하니, 내 한평생, 주
님의 집에 사는 것이라네.



원훈 갈리스도 신부
대관령 본당 주임

들꽃의 미학

아침 일찍 운동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배수로를 덮은 철망 사이로 빠져나온 들꽃을 발견하고선 한참을 바라본 적이 있습니다. 원하지도 않았을 척박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생을 포기하지 않고 피어오른 들꽃의 의지가 참으로 멋져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가려진 줄기로 온갖 세상 풍파를 다 견디어 내며 힘겹게 서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제 눈엔 세상 풍파를 슬기롭게 즐기면서 하늘 바람도 타며 스스로 줄기를 강인하게 단련시키는 영악한 녀석으로 보였으니 말입니다. 어쩌면 그런 의지와 지혜 덕택에 철망을 뚫고 세상의 또 다른 측면을 만끽하고 있을 수 있었겠지요. 그 녀석은 저에게 마치 세상을 탓하기보다는 즐기는 방법을 아는 인생의 선배 같아 보였습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씨앗이지만 하늘의 새들이 깃들일만한 아름다리나무가 되어 모든 이의 편안한 안식처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안겨 주십니다. 주님의 성전에 머무르며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 보이지 않는 선행을 실천하고 작은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나누는 삶이야말로 진정 삶을 즐기며 살아가는 방법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의 씨앗을 정성껏 심어 잘 자라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씨앗을 심는다는 것은 하느님의 말씀을 내 안에 모시는 것이기에 그분의 말씀을 되새기고 즐기며 살아간다면 세상 어떤 풍파도 하늘 거리는 산들바람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부족함이 많지만, 저 또한 즐기며 살아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상 편히 즐기며 살기엔 지금의 현실이 가혹하기 그지없지만 저 들꽃을 생각하며 주어진 삶에 성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지혜와 용기를 청하고자 합니다.

“하루의 결심! 주님께 30분을!”

“여러분이 바로 하느님의 성전입니다.” (1코린 3,17)

새 성전 신축을 위해 아낌없이 즐기며 임해 주시는 대관령 본당 공동체 교우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우리 교구 모든 하느님 백성이 말씀의 씨앗을 잘 가꾸어 기쁨에 찬 선행과 봉사의 실천으로 하느님 나라에 봉헌될 아름다운 성전으로 거듭나길 기도합니다. 



성경은 하느님 백성이 모인 신앙 공동체에서부터 생겨났기에 “성경의 본래적 자리는 교회의 삶 자체”(주님의 말씀 29항)입니다.



우리 주변의 마귀들

우 리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 형제자매, 사제, 수도자분들과 관계를 맺고 교류를 하며 삽니다. 좋은 일도 많지만, 일반 사회에서는 느껴 보지 못하는 상황도 벌어지곤 합니다.

33년 전에 대도시에서 주일 미사만 드리던 신자 생활을 하다가 춘천교구로 이사를 온 직후 작은 봉사활동도 하면서 꾸르실료도 다녀오는 등 새로운 신앙생활에 빠져가던 시기였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부터 질문이 중요하다고 느껴왔고 지금까지도 궁금하면 창피해하지 않고 전문가나 스승에게 질문을 해서 알아보곤 합니다. 그 당시 저는 구마 기도문을 보고는 보이지 않는 마귀의 존재에 대해 궁금했는데 본당 신부님과 식사를 하던 차에 그 자리에서 “신부님! 혹시 마귀가 진짜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신부님이 “있지요!” 하시곤 “성당에 특히 많아요. 성당 지붕에 마귀들이 많아요!” 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도 “와글와글하게 많아요” 라고 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까지도 선명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세월이 한참 지나서 냉담의 시기를 보내고 다시 성당에 나왔을 때 미사를 드리고 신자분들과 서로 밝은 얼굴로 ~형제님, ~자매님하고 호칭하며 평화의 인사를 나누고 강당에서 식사 나눔을 같이 할 때는 ‘내가 왜 이곳을 잊고 냉담 시기를 가졌던가, 성당을 계속 잘 다녔다면 나에게 그 당시의 고통이 피해 갔었을까?’ 하고 맘속으로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 때문에 당황스러웠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33년 전에 말씀하신 신부님의 얘기가 떠올랐습니다.

성 미카엘 대천사님, 싸움에서 저희를 지켜 주소서.
사탄의 악과 간계에서 저희를 보호해 주소서.
간절히 청하오니
하느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사탄을 쫓아 버리소서.
천상 군대의 영도자 미카엘 대천사님,
영혼들을 멸망시키려고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사탄과 모든 악령을
하느님의 힘으로 지옥으로 쫓아 버리소서. 아멘.

우리는 세례식 때 예비 신자와 함께 신부님의 “마귀를 끊어버립니까?” 하는 질문에 “네! 끊어버립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아마도 전례가 이렇게 된 것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마귀가 달라붙기 때문이 아닐까요? 돌이켜 보면 의미없이 허공에 대고 끊겠다고 대답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저에게 붙은 마귀도 지옥으로 쫓아 버리소서. 아멘.

가까운 거리 걸어 다니고 대중교통 이용하기

프라 안젤리코 <수태고지>



가톨릭 교회 교리서와 함께 “교리 문해력” 높이기 ¹¹

믿음의 순종과 신앙의 특성

글 | 안효철 디오니시오 신부

사제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때 열심히 청년 가운데 하나가 쓰던 용어 하나가 참 어색하게 느껴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 청년회 활동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성당 생활’이라는 표현을 쓰곤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표현입니다. 회사에서의 일들은 회사 생활이라 하니 성당에서의 일들을 성당 생활이라고 하는 건 언뜻 자연스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아니면 좀 더 넓은 의미로 종교 생활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들은 거의 항상 ‘신앙생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몇 주에 걸쳐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알려 주시고 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느님의 계시에 관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느님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미 익숙하게 사용하는 그 표현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표현으로 정리하면 ‘**믿음의 순종**’ (로마 1,5;16,26)이라고 하는 **“신앙으로써 온전히 자신의 지성과 의지를 하느님께 복종”** (가톨릭 교회 교리서, 143항)시키는 응답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순종은 **자신이 들은 하느님의 말씀에 자유로이 순종**하는 것이며, 성경은 아브라함을 그 모범으로 제시합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144항). 그리고 교회는 이를 가장 완전히 실현하신 분으로 마리아를 공경합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149항).

일상에서도 ‘나는 누군가를 믿는다, 신뢰한다’는 표현을 사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상대의 어떤 점, 어떤 말들을 믿고 따르는 경우가 꽤 있겠지만 그 상대방 자체를 무조건적이며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간혹 있더라도 자유로운 사랑의 관계보단 가스라이팅에 의해 만들어진 것과 같은 잘못된 관계가 더 많을 겁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절대적으로 옳은 분이시며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시는 분이시기에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서는 인간들 사이에서와는 다른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믿음의 순종은 하느님께 나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 절대적으로 그분을 믿는 것, 그래서 그분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하느님께 대한 인간의 응답인 ‘신앙’의 여러 특성을 제시합니다. 지면 관계상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만 정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신앙은 은총**입니다. 신앙은 **인간이 하느님께 응답**하는 참으로 **인간적 행위**임이 분명하나 하느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153~154항).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계시 진리를 믿는 것이기에 우리의 지성적 작용을 넘어서는 신비의 영역이 당연히 존재하나, 신앙은 우리의 **이해를 요구**하며(가톨릭 교회 교리서, 158항) 이를 위한 다양한 학문적 방법 또한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이성과 신앙은 대립하지 않고 서로 조화를 이루며, **더 깊은 이해는 더 불타는 믿음을** 불러일으킵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158항). 신앙은 당연히 억지로 강요당해서는 안 되며 인간의 자유로운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160항). 다만 신앙은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며 우리 구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에 우리는 끝까지 이 신앙을 간직하기 위해 하느님의 말씀으로 신앙을 키우고 주님께 늘 은총을 청해야겠습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161~162항).



QR코드로 가톨릭 교회 교리서 이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교리서 86~95쪽, 142~165항을 함께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안내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9일 기도

기간: 6. 17.(월)~25.(화)

방법: 미사 전·후 기도문 함께 봉헌

기도문: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가톨릭 기도서 109쪽 / 매일미사 180쪽)

지향: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하여

6. 17.(월)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회심
6. 18.(화)		상호 존중
6. 19.(수)		평화의 일꾼
6. 20.(목)		이산가족과 북한이탈주민(북향민)
6. 21.(금)		세계 정치 지도자
6. 22.(토)		남북교류협력
6. 23.(주일)		과도한 군비경쟁 중단
6. 24.(월)		한반도 비핵화
6. 25.(화)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

교구 미사: 6. 23.(주일) 11시, 가평 성당, 김주영 주교님

6. 23.(주일) 각 본당별 미사 봉헌

6. 25.(화) 11시, 죽림동 주교좌 성당, 김학배 신부님 (남북한삶위원회 부위원장)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심포지엄

주제: 가톨릭교회와 평화교육

일시: 6. 20.(목) 14:00~16:30

장소: 서울대교구 가톨릭회관 3층 강당

신청: forms.gle/n2bdC3VyPZwXML5P6



▲ 심포지엄 신청

가톨릭 신자를 위한 '평화와 화해'교재 제1권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교재로, 총 8과로 구성되어
성경, 가톨릭 사회 교리, 역대 교황들의 평화에 대한 가르침 등을 담고 있습니다.

면수: 152면 / 정가: 5천원

구입문의: 02-460-7582~3(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업무부)



교구 소식 및 교회 알림

가평 본당 사목 방문

6. 21.(금)~23.(주일)

남춘천지구 사제단 간담회

6. 26.(수) 16시, 교구청 대회의실

강원도종교평화협의회

6. 28.(금) 11시, 순복음춘천교회

견진 성사

미원 본당: 6. 29.(토) 19시

사제 영명축일 축하드립니다!

6. 21.(금) 알로이시오

임흥지 신부

6. 21.(금) 루이스

방기태 신부

2024년 제10회 청년도보순례

7. 5.(금)~7.(주일) 2박 3일

주제: 평화가 너희와 함께!

일정: 속초 교동성당—고성통일전망대(약 56km)

대상: 만 19~39세 청년

참가비: 12만원

신청마감: 6. 16.(주일), 선착순 80명

자신의 배낭을 메고 걷습니다.

자세한 사항 공문 참조

☎ 033-253-6064

6월 예비 신학생 모임

6. 16.(주일) 14시, 춘천·남춘천: 퇴계 성당

중부: 홍천 성당 / 서부: 포천 성당

영동: 노암동 성당 / 영북: 교동 성당

고 (A. Collier) 안토니오 신부 74주기



생년월일 : 1913.

서 품 일 : 1938.

선 종 일 : 1950. 6. 27.

교구 제단체·모임·미사·피정·교육

제54차 정의평화위원회 월미사

6. 17.(월) 19시, 서울 성당

주례: 권오준 신부 (정평위원장)

강의: 경동현 (우리신학연구소 연구실장)

주제: 시노달리타스와 정의평화

시각장애인 선교회 월미사

6. 18.(화) 11시, 한살강당

남북한살위원회 2분기 정례회의

6. 19.(수) 15시, 사회사목센터 대회의실

평협 전반기 상임위원회

6. 22.(토) 10시, 말당화관

레지아 3차 단원 교육

6. 22.(토) 13시, 청호동 성당

이벽 요한 세례자 축일 미사

6. 24.(월) 11시, 화현 이벽 성지

10시: 묵주 기도, 자비 기도

오시는길: 포천시 화현면 화동로 447

☎ 031-531-2234

행복한 가정과 부부를 위한 144차 ME 주말

6. 21.(금)~23.(주일), 춘천 가톨릭회관

대상: 결혼 3년 이상 부부, 신부님, 수도자

신청: 김경호 야고보·조정아 헬레나 부부

☎ 010-5579-6826, 010-8242-8018

성령새신봉사회

6. 21.(금) 19~23시, 운교동소성당

강사: 차선미 스텔라 (인천교구)

미사: 19:30, 엄기선 베네딕토 신부

주차: 성당 및 운교노인복지센터 앞

☎ 010-2962-4051

찾아가는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

6. 16.(주일) 14~16시, 퇴계 성당

7. 14.(주일) 14~16시, 7월부터 둘째주 주일

천주교 인권 위원회 위원 차진태 모세

☎ 010-3721-9144 예약 후 정해진 시간에 상담

가톨릭서간, 요한묵시록 묵상강의(90분, 8강)

7. 2.(화)~8. 20.(화) 매주(화) 10시

비대면 줌(Zoom) 강의

강사: 이현주 카타리나

신청비: 만원 / 신청: 본당 사무실

신청마감: 6. 20.(화)까지, 개별 신청 가능

☎ 033-240-6019, 6020, 6076

어르신 제17차/혼성 제3차 꾸르실로

어르신: 7. 18.(목)~21.(주일) 가톨릭회관

혼성: 7. 25.(목)~28.(주일) 가톨릭회관

신청: 7. 7.(주일)까지, 본당사무실

각 차수별 35명 (선착순)

☎ 010-9558-1199

7월 카나 혼인 강좌

7. 27.(토) 18:30, 애막골 성당

대상: 결혼을 앞둔 부부/관면혼배를 위한 부부

☎ 033-240-6095 가정생명환경부

본 당 알 림

6월 하느님 자비의 기도모임

6. 17.(월) 13~16시, 임당동 성당

기도하고 싶은 누구나 / 강의, 성시간, 고해

성사, 미사 / 매월 세번째 월요일

영동지구 폐제 기도 모임

6. 29.(토) 20시, 초당 성당

기도하고 싶은 누구나 / 찬양, 기도, 침묵, 말

씀, 일치, 마음의 평화와 치유

사제, 수도자가 기도 모임에 함께합니다.

양양 물치성당 사무장 모집

사무장 1명 (15개월 계약직, 경력자 우대)

대상: 세례받은지 3년 이상 신자

(사무행정, 회계업무, 엑셀, 한글 가능자)

서류: 자필이력서, 본당 주임 신부님 추천서

접수: 메일 bds0007@naver.com 6. 30.까지

☎ 010-4482-5977 문자 접수

성소모임 / 성소모임은 수시로 신청받습니다.

척한목자수녀회	수시	서울 자양동 수녀원(건대입구역)	010-7197-1390	한사람은 온세상보다 소중합니다.
예수의까리파스수녀회 서울관구	6. 23.(주일) 10~15시	서울관구 본원(사당역 1번 출구)	010-5830-3217	www.icaritas.or.kr/home

중앙산부인과(속초)

산전진찰, 부인과진료, 골다공증 관리

국가암검진(자궁, 유방암)

성인 예방접종, 영양수액

☎ 033-637-9887

김군하 다미아노

타파웨어 춘천 중앙점

무공해 무독성 김치통, 냉장·렌지용기

환경 호르몬이 나오지 않는 타파웨어

정수기, 혼수용품

중앙시장 제일백화점 2층

☎ 010-9042-3638 김소정 안젤라

타워온누리약국

병·의원처방조제, 반려동물의약품조제판매

개인맞춤영양제(셀로맥스, 셀메드 등)상담

센트럴타워푸르지오 상가 2층2228호

☎ 033-255-3300

김성환 T.아퀴나스 · 정은지 세실리아

독일 디지털 보청기

동서 의료기 백화점

☎ 033-647-6063(강릉 임당동)

☎ 033-531-7887(동해 묵호동)

우명숙 글라라 · 김길영 마르티노

인 준 시 설

춘천시립양로원 입소 어르신 모집

국민기초생활 수급 어르신, 일상 생활에 지장 없는 65세 이상 어르신

☎ 033-262-0303

카페 봄내 운영

밀알일터에서 직접 로스팅한 커피를 바리스타 장애인들의 훈련 장소로 운영중인 카페 봄내(말당회관 1층)에서 착한 가격으로 판매하오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운영: 10~16시(월~금)

마들렌의 집 원장 모집

사회복지사자격증, 운전면허증, 성매매방지상담원 양성 교육 이수자 / 주 5일 근무(40시간), 4대보험, 퇴직연금 / 급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건비 가이드라인 7.1. 부터 근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070-7786-5242

밀알재활원 직원모집

분야: 조리원 2명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 공정한 채용을 위해 출신학교, 주민번호, 사진, 추천인, 종교 기재금지
접수: 우편, 이메일 irene-moon@naver.com

☎ 033-261-3112 www.milalfriend.or.kr

춘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 채용

분야: 전일제 청소년 동반자

서류: 6. 19.(수) 15시까지

면접: 6. 21.(금) 14시

상세내용 홈페이지(www.8181388.co.kr)

☎ 033-818-1389

갈바리의원(호스피스완화의료전문기관)

말기암 환자분들을 위해 무료 간병인 서비스

☎ 033-644-4992

일 반 알 림

예비자 통신교리(우편·사이버·신자재교육)

주소: 서울 중구 장충단로 188, 분도 빌딩 506호

주최: 가톨릭교리통신교육회 / 회비: 만원

☎ 02-2274-1843~4 / cdcc.co.kr

제주, 전국 167곳, 일본, 베트남, 마카오 성지순례

제주, 전국 167곳-36만원

베트남, 마카오, 북해도, 아키타, 도쿄, 오사카, 나가사키 각 3박 4일-120만원

☎ 010-4239-1929 마르코투어

★ 가톨릭춘천신협 ★
거두리 지점
7월 1일 OPEN!

★ 조함원님의 많은 관심과 ★
성원 부탁드립니다.

☎ 033-255-6742 가톨릭춘천신협

한반도 평화를 위해

매일 밤 9시 주모경을 바칩시다.

운교노인복지센터

방문요양(목욕) / 주간보호 어르신 모집

대상: 춘천지역 노인장기요양등급 수급자

도시락배달 자원봉사자 모집(연중 모집)

대상: 자가용 운전 및 도보 가능자

☎ 033-255-8980, 010-4274-1666

꽃동네성도자를 위한 행복피정(나는 행복합니다)

7. 6.(토) 13~7.(주일)16시, 꽃동네사랑의

연수원 / 대상: 고2~35세 미만 젊은이

참가비: 5만원(1인실-1박2일) / 사전예약 접수 요망

☎ 010-4468-5628 형제회/010-4830-2820 자매회

예수회후원회 성지순례

8. 6. 일본 나가사키 순교성지(4일) 145만원

9. 26. 조지아, 아르메니아(초기교회 발자취 10일) 440만원

10. 9. 터키, 그리스(사도바오로 발자취 12일) 470만원

10. 22. 일본 나가사키 순교성지(4일) 130만원

11. 4. 알프스주변 수도원 및 성모성지(KE12일) 530만원

☎ 02-722-8366 크로바여행사

가톨릭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8. 19. 유럽 4개국 성모님 발현지 12일 (525만원)

10. 7. 유럽 4개국 성모님 발현지 13일 (550만원)

10. 14. 튀르키예, 그리스 12일 (475만원)

10. 23. 발칸3개국 메주고리에 성모님 발현지

11. 21. 멕시코 과달루페 성모님 발현지 10일

☎ 010-5235-3533 www.catholictravel.co.kr

성 도미니코선교수녀회 피정안내

하느님, 바람, 나(힐링피정): 7. 5.(금)~7.(주일)

효소단상: 7. 11.(목)~14.(주일)/8. 9.(금)~12.(월)

성경완독: 7. 26.(금)~8. 3.(토)/8. 23.(금)~31.(토)

☎ 010-3340-0201 황성 도미니코파정의집

제주 성 이시돌 자연 순례

이시돌 목장내 성지에서 침과 성지순례,

제주여행과 자연순례(2024년 연중피정 접수중)

여름피정(우도자유일정포함): 7. 12~14./7. 20~22.

7. 25~28./8. 1~4./8. 6~8./8. 10~13./8. 24~26.

☎ 02-773-1455, 064-796-4182 접수

cpbc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

케이블 TV 지역마다 다름 / 위성 TV 184번 / olleh tv 231번 / B tv 307번 / U tv 274번

평화 장례를 돕는 사람들(춘천)

힘들고 어려운 장례 후불제로 진행
(제휴 장례식장 할인)

묘지관리·이장·벌초/무엇이든 물어보세요(전국 어디나 가능)

☎ 010-2678-9789 홍성식 토마스

대건 건설·조경·중기

홍천 지역 각종 굴삭기, 덤프 임대

토목·택지·조경 공사·객토

☎ 010-5361-5641

한성근 대건 안드레아

함경도 아바이 젓갈(속초)

한국인의 밥상 KBS 1TV 촬영

가자미식해 촬영지 / 가자미식해,

명란, 창란, 오징어젓갈, 각종 젓갈

☎ 632-6561, 010-3341-0470

양수근 임마누엘·박순옥 임마누엘라

신 영 측 기 사(서울)

측량기, 광파기, GPS

데오도라이트, 레벨

☎ 02-2619-4455

☎ 010-6245-3450

고한용 요셉

스타키보청기
춘천난청센터

청력검사/ 난청상담/ 보청기상담
춘천 이마트 건너편 위치

☎ 033-251-3131

김형근 프란치스코

춘천 장례식장

검안의 상시 대기

교구 협약 특별혜택

☎ 010-4479-4414

이성범 요셉 사무국장

전국장례지도사연합회

산골농장 흑염소 건강원

"청정 양구" 자연 방목 흑염소

"30년 전통"의 농장 직영 건강원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 010-6443-4811

신양순 다리아

가람 익스프레스

일반, 포장, 보관이사, 전문업체

항상 미소짓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합니다.

☎ 244-2439, 010-9125-2828

강길훈·김경옥 비르짚다